알리 진격에 이마트 '뼈 깎는 구조조정'… 토종 유통업 위기

이마트 사상 첫 전사적 희망 퇴직… 근속 15년 차 이상 대상
알리는 1000억 쇼핑보조금·100만 원 쿠폰 물량 공세

이마트가 희망 퇴직을 실시하며 유통업계의 경영 효율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업 확장이 눈에 띈다. 연합뉴스

이마트가 희망 퇴직을 실시하며 유통업계의 경영 효율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주된 이유로 온라인 유통 강세가 지목되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영향력 확장이 눈에 띈다.

이마트는 25일 사내 게시판에 전사 희망 퇴직 실시를 공지했다. 근속 15년차 이상의 수석부장~과장급 인력이 대상이다.

이마트는 2023년 4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마트가 영업이익 적자를 낸 것은 2011년 신세계 그룹에서 인적 분할돼 법인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의 적자가 주요 원인이지만 별도 영업이익 또한 2022년 2588억 원에서 2023년 1879억 원으로 감소하며 수익률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이마트는 2023년 서울 성수점을 비롯해 6개 점포를 폐쇄했으며 올해 초 서울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 1993년 이마트 1호점 설립 이후 최초의 전사적 희망 퇴직까지 실시하며 본격적인 경영 효율화에 나섰다.

유통 기업의 경영 효율화는 이마트만의 일이 아니다. 2023년 12월 롯데마트가 시니어 전 직급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했으며 GS리테일 역시 2023년 말 1977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업계가 덩치 줄이기에 나선 이유로는 온라인 유통 강세가 지목된다. 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유통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50.5%로 역대 최초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온라인 쇼핑이 힘을 얻었을 때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됐으나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나서도 온라인의 성장이 지속 중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키우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힘을 키우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시장 장악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안에 18만㎡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2억 달러(약 2674억 원)를 투자하고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 지원을 위해 1억 달러(약 1377억 원)를 투자하는 등 3년 동안 11억 달러(약 1조4709억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공개 채용 광고를 통해 인력 확충에 나서는 등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8일 국내 셀러 입점 채널 케이베뉴 고객들에게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제공하고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쇼핑 쿠폰을 배포하는 등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 국내 온라인 유통 기업이 건재하기는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의 프로모션 행사 참가자가 1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규모 이용자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전통적인 국내 유통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유통 기업이 끼어드는 형세가 되면서 국내 시장이 중국 기업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합병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사업 추진 속도 낼 듯

에코프로비엠 회사 전경.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글로벌을 흡수 합병한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글로벌을 대신해 직접 헝가리 사업을 총괄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26일 에코프로글로벌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양사합병은 25일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에코프로글로벌의 별도 새로운 주식 발행 없이 진행되며 합병 기일은 5월30일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를 소재로 하는 차세대 배터리 전문 기업이며 2016년5월 모회사 에코프로부터 분리됐다. 에코프로글로벌은 2021년9월 에코프로비엠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어 유럽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관련 투자와 건설을 총괄하며 국외 진출을 주도해왔다. 사업 구조는 에코프로비엠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자회사 헝가리 법인에 자금이 투입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합병으로 에코프로비엠(BM)에서 에코프로글로벌(Global)로 에코프로글로벌(Global)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Hungary)로 이어지던 사업구조가 에코프로비엠(BM)→에코프로글로벌헝가리(Hungary)로 단순해진다.

에코프로비엠 관계자는 "본 합병은 에코프로글로벌의 동의하에 진행됐으며 추후 사업 관련 의사 결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것이다"며 "인적·물적 자원관리가 원활해져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lsj@skyedaily.com

고려아연·영풍 '알짜' 서린상사 놓고 으르렁

영풍 "인적분할 고려아연 일방적 파기" 고려아연 "진행 지지부진한 것"
고려아연 지분율 과반 초과… 이사회 개편안 강행 시 후폭풍 예상

최근 결별을 선언한 고려아연과 영풍이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 경영권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측 서린상사 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6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린상사의 인적분할을 추진했던 것은 맞으나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사회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기업이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이 소유한 기업이지만 경영은 영풍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고려아연과 영풍이 갈라서게 되면서 양측의 업무를 담당했던 서린상사 또한 교통 정리가 필요해졌다.

비철금속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3월 내에 서린상사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4명의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3월10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이 서린상사의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됐으며 2023년 11월21일에는 이승호 고려아연 부사장이 공동대표 및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등 고려아연 측 인사들의 이사회 비중이 높아져 왔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4명이 고려아연 측 인물이며 전문경영인인 류해평 서린상사 대표이사를 영풍 측 인사로 분류해도 4대 3의 구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이사 4명이 추가된다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고려아연이 확실히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영풍은 서린상사를 인적분할해 신설된 법인 지분 100%를 고려아연이 갖고 존속법인 지분 100%를 영풍이 보유해 각각의 업무를 맡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이 인적분할을 위해 이사회에 참여했던 이승호 부사장의 퇴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려아연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장에 대해 이사회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서린상사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영풍 측 주장은 부인했다.

서린상사의 최대 주주는 49.97%를 보유한 고려아연이며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의 비중은 16.69%다. 영풍의 창업주인 고(故)장병희 명예회장의 손자인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 및 특수관계자는 10.48%를 보유 중이다.

지분율 싸움으로 가면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영풍이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고려아연이 원하는 대로 이사회가 개편되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HD현대마린솔루션 5월 상장 목표 순항

유가증권시장 상장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HD현대의 조선·해양산업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26일 금융위원회에 전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5월 내로 유가증권시장(KOSPI·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을 통해 89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이 신주 445만 주(50%)를 발행하고,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KR이 보유한 1520만 주 중 445만 주를 구주 매출로 내놓는다. 2480만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HD현대는 구주 매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7만3300원부터 8만3400원으로 총 예상 공모 금액은 6524억~7423억 원이다. 공모 희망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3조2582억 원에서 3조7071억 원이다. 수요예측은 내달 16~22일 진행되며 일반청약은 같은 달 25~26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KB증권과 스위스의 금융 서비스 회사 UBS 및 미국의 유력 투자은행 JP모건이다. 공동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이다. 또한 인수단에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도 포함됐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2016년 증가하는 선박의 애프터마켓(AM)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법인으로 설립됐다. 이후 기존 선박 AM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개조·디지털 솔루션 등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장했다.

2017년 출범 첫해 매출은 2403억 원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3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매출 1조4305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